

▶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상편 ◀

1. 문학 속으로

- (1) 동짓달 기나긴 밤을 (35문제)-----1쪽
- (2) 봄.봄 (47문제)-----12쪽
- (3) 이옥설 (39문제)-----42쪽
-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6문제)-----57쪽

2. 말과 글의 힘

- (1) 한국의 정체성 (34문제)-----84쪽
- (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40문제)-----101쪽

3. 삶에서 책을 찾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30문제)-----123쪽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 (1) 음운 변동 (66문제)-----137쪽
- 한글 맞춤법 (69문제)-----156쪽
- (2) 국어의 역사성 (61문제)-----180쪽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 (1)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32문제)-----199쪽

▶ 빠른 전체 정답-----217쪽

▶ 해설-----22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한국의 정체성” 문역 정리

◆핵심 정리◆

간체	논설문
성격	, 논증적, 설득적, 비판적
제재	한국의 정체성
주제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 구체적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구성

원조 콤플렉스	
▶ 문제 제기:	‘시원’은 고유성의 기준인가?
	- 흠의 말, 프랑스 포도주의 사례
	- 조지훈의 고건
▶ 답:	고유성은 ‘시원’이 아닌 개성의 문제이다.

개성의 의미	
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산수화와 중국의 산수화
②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차중락의 노래와 모창 가수의 노래
③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가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원품과 정교하게 복제된 그림
<p>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은 지적 재산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개성을 말살하는 행위</p>	

•주요 개념 정리

고유성	어떤 문화 또는 사상이 갖는 독특함, 개성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성과 개성은 동의어 • 판단 기준 ①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는가? ②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녔는가?

•외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때 점검해야 할 점

글의 내용이 독자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글, 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쓴 글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는가?
글의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았는가?
정직하고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썼는가?

“한국의 정체성” 모티브 문제

1. 다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1) 이 글의 필자가 밝힌 ‘고유성’과 ‘개성’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고유성이란 무엇인가?

‘고유성’과 관련한 사례	‘고유성’과 관련한 말
포도나무는 프랑스가 원산지이지만, 지금은 포도주가 프랑스를 상징하게 되었다.	<조지훈의 말 요약> “첫째, 문화 또는 사상은 인류 일반의 생활과 사고 방식의 민족 개성적 양식화란 뜻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고유 사상은 본디부터 있는 사상이 아니라 개성적, 주체적으로 있게 된 사상이란 뜻이다.”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이다.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사상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한국의 고유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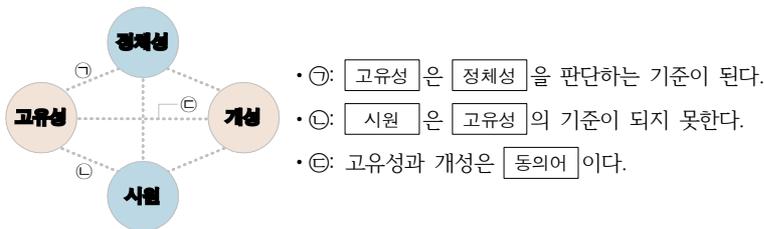
• ‘개성’이란 무엇인가?

‘개성’의 판단 기준
①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

• ‘개성’과 관련한 사례

유명 가수와 원품	모창 가수와 위조품
유명 가수와 원품은 수적으로 동일하고 개성이 있음.	• 모창 가수와 유명 가수, 위조품과 원품은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음. • 모창 가수는 유명 가수만큼의 미나 멋이 없고, 개성도 없음. • 위조품은 일정 수준의 격이나 미를 갖추었으나 개성이 없음.

(2) 이 글에 나오는 핵심 개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까닭을 ‘시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말해 보자.



어떤 것의 맨 처음 즉,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원조’라는 말을 너도나도 간판에 사용하는 ‘원조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4. 「한국의 정체성」을 쓴 필자의 입장에서 다음의 광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해 보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음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이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는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갖아가 결과적으로 개성을 말살하는 행위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의 정체성” 담긴 문화

이 글이 쓰일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 세계 여러 나라와의 접촉과 교류가 매우 활발해져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가 홍콩 영화 속에 등장하는 탈을 보았을 때 외국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관련이 있다고 느낀 것처럼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말해 보자.

→ 태국 여행을 하며 ‘쌈뎀’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생선 것같은 맛이 나면서 우리가 먹는 ‘김치’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조지훈의 견해에 근거하여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한국적 개성이 담겨 있는 것이면 무엇이건 가능하다. 인류 보편의 사상 혹은 다른 나라에서 기원한 사상일지라도 우리의 개성이 담겨 있으면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 유교, 기독교 등도 우리만의 고유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 그 앞에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으면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류 일반 사상인 ‘휴머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의 ‘홍익인간’,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에 드러나 있고, 후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역사적 환경을 거쳐 ‘춘향전’, 「양반전」 등의 문학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한국 고유의 사상인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도 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민중 정신으로 드러나고 있다.

필자가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까닭을 말해 보자.

→ 우리의 개성을 말살하여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아 가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등 인근의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세계의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에 한국적인 것, 즉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지 않고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확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정체성을 탐구하려면 '한국적인 것이 이것이다.'라는 판단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그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고유성이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탈춤이 우리의 고유한 민속으로, 주로 양반 계급의 위선을 풍자하는 데 쓰였다고 배웠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홍콩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청룡이었는데, 영화 속에서 그는 사자 모양의 큰 탈을 쓰고 경연한다. 그가 쓴 탈은 우리나라의 탈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탈을 우리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설사 탈춤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그것이 변형되어 창조적으로 발전되었다면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탈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전파된 것임을 밝혀 우리 탈춤의 우월성과 고유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고찰할 때면 언제나 시원(始原)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과연 시원은 고유성의 기준이 되는가?

(다)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다.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류가 지금 가진 문화나 문명의 고유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의 고유성, 영국의 고유성, 중국의 고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시원과는 관계없이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흠은 이미 2백여 년 전에 “프랑스가 포도나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후를 가진 나라지만, 포도나무가 그곳에 이식된 것은 2천 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포도주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흠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프랑스에 이식된 것은 2천여 년 전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을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프랑스는 포도주의 고유성을 지켜 질 수 있다.

-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동방고등학교 (대전)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문맥과 정황을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학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 ④ 중심 개념의 의미를 예상되는 반론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질문을 제기한 후 몇 가지 가설을 언급하며 차례대로 검증하고 있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2. 이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② 탈춤의 시원(始原)은 어디에 있는가?
- ③ 프랑스의 포도주는 고유성을 지녔는가?
- ④ 인근 나라와 교류를 촉진할 방법은 무엇인가?
- ⑤ 한국의 탈은 중국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동방고등학교 (대전)

3.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 전체의 주제를 단정하여 제시한다.
- ②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독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화제에 얽힌 사회적 문제에 관한 독자의 참여를 촉구한다.
- ④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중심 내용을 강조한다.
- ⑤ 글의 첫 부분에서 제기한 물음을 반복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4.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고유성의 필수 조건으로 '시원'을 꼽고 있다.
- ③ 홍콩과 우리나라의 사자 모양의 큰 탈은 매우 흡사하다.
- ④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했다.
- ⑤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세계 속에서 우리를 확립할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유성과 개성이 동의어로 쓰인다면, 정체성 탐구란 고유성이나 개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성이란 개체만의 특성이다.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개체만이 갖는 성질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모든 개체는 수적 동일성만을 갖는다. 즉, 자기 자신하고만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란 집단의 정체성, 즉 집단의 개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므로 수적 동일성이 아닌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해야 한다.

(가)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인 동시에 일정 수준의 격조나 미를 말한다. 그러면, 구별하기 힘든 위조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해외 토픽에서 우리는 종종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대가의 작품이 위조품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를 본다. 전문가도 속을 정도의 정교한 위조품이었던 것이다. 이 경우 위조품은 물론 원품과는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물리적 속성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미적 감흥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격이나 미를 갖춘 것이다.

(나) 복제품을 만들거나 표절을 하는 행위가 범법임은 물론이다. 즉, 도둑질이다. 따라서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도둑질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창 가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모방하여 노래하는 한, 평생 자신의 개성을 가질 수 없다. 언제까지나 유명 가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모조 외국산 명품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떤 국산 핸드백을 살까를 고민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일본 노래 표절에 익숙한 사람은 왜 힘들여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은 우리에게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앗아 간다. 즉, 우리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개성은 남과 구별되는 속성이다. 그런데 남의 것을 그대로 흉내 낸다면, 어떻게 개성이 생길 수 있겠는가? 개성이 없다면 정체성도 없다.

(다) 그러면 한국의 개성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선의 산수화는 중국의 산수화와 거의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국 산수화만이 갖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산수화가 고유성을 갖는다거나 개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이와 같이 구별 짓는 속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다른 하나의 측면, 다시 말해서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할 것이다.

(라) 유명 가수를 모방하는 많은 모창 가수가 있다. 하지만 유명 가수와 모창 가수는 분명히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음색이나 창법이 매우 흡사해도 유명 가수의 노래와 모창 가수의 노래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모창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창 가수에게 개성이나 고유성

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창 가수의 노래는 의식적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를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만큼의 미나 멋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모창이라 해도 어느 수준의 미를 창조하거나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노래를 개성이 있는 곡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차중락이 부른 '낙엽 따라 가 버린 사랑'은 비록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차중락의 대표 곡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위조품은 개성이 없는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복제된 그림은 원품과 비교할 때 단지 원작자가 그리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럼 원작자가 그린 것인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그렇다는 것이 대체적인 답변일 것이다. 나도 이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 앞서 우리는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즉,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의 여부는 고유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복제의 경우, 누가 그렸는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가 그렸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는 위조품이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복제품은 원품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 작품이므로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즉, 복제품이 일정 수준의 미를 갖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복제품은 자신만의 개성이 없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5. (가)~(마)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가)-(라)-(다)-(마)-(나)
- ② (다)-(라)-(가)-(마)-(나)
- ③ (다)-(라)-(마)-(가)-(나)
- ④ (라)-(가)-(마)-(다)-(나)
- ⑤ (라)-(다)-(마)-(가)-(나)

마포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필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해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00억 투자했다는 빙그레 '슈퍼콘', 일본 아이스크림 표절 논란

빙그레가 4년간 10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내놓은 신상 아이스크림 '슈퍼콘'이 출시하자마자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빙그레는 초코맛, 바닐라맛 등 총 2종으로 구성된

신상 아이스크림 ‘슈퍼콘’을 출시했다. 빙그레는 풍부한 토핑은 물론 새로운 포장 방식으로 국내 제품에는 없는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자마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글리코제과에서 출시한 ‘자이언트콘’이 그 대상이다. 1963년 처음 출시된 자이언트콘은 여러 차례 리뉴얼을 통해 현재의 포장 디자인과 맛을 갖게 됐다.

토픽이 많이 올라간 아이스크림 비주얼도 비슷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포장 방식이다. 두 제품 모두 기존의 돌려서 까는 형태가 아닌 삼각형 모양으로 포장이 마무리돼 있다. 제품명이 새겨진 위치나 글씨 디자인, 파랑과 빨강으로 이뤄진 포장지 색깔도 흡사하다.

일본의 자이언트콘과 빙그레의 슈퍼콘을 비교해본 누리꾼들은 “맛부터 포장까지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며 표절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2018년 4월 7일 ○○일보

- ① 도둑질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 ②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성을 말살하는 행위이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 ④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므로 용인될 수 있습니다.
- ⑤ 이미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므로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7. 밑줄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하나의 쟁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 ④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세계와 본격적인 교역과 교류를 시작한 것은 불과 백여 년도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교역과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등 인근의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세계의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에 한국적인 것, 즉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지 않고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확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정체성을 탐구하려면 ‘한국적인 것이 이것이다.’라는 판단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그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고유성이다.

<중략>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다.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류가 지금 가진 문화나 문명의 고유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의 고유성, 영국의 고유성, 중국의 고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시원과 관계없이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흠은 이미 2백여 년 전에 “프랑스가 포도나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후를 가진 나라지만, 포도나무가 그곳에 이식된 것은 2천 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포도주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흠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프랑스에 이식된 것은 2천여 년 전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포도를 그들의 방식을 재배하여 그들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프랑스는 포도주의 고유성은 지켜질 수 있다. 즉, 포도주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개되었을 때, 후자가 포도주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킨다면 포도주는 오히려 전자가 아닌 후자의 정체성의 상징이 될 것이다.

<중략>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면, 즉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시원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조(元祖)가 어디인가 또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이나 독특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조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우리가 개성과 독특함을 붙여넣고 또한 갖게 했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동종 업종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난무하는 ‘원조 ○○’이라는 간판이 더는 의미가 없어 사라질 때 우리의 원조 콤플렉스도 사라질 것이다.

<중략>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인 동시에 일정 수준의 격조나 미를 말한다. 그러면, 구별하기 힘든 위조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해외 토픽에서 우리는 종종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대가의 작품이 위조품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를 본다. 전문가도 속을 정도의 정교한 위조품이었던 것이다. 이 경우 위조품은 물론 원품과는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물리적 속성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필독 정리

◆핵심 정리◆

갈래	반대 신문식 토론
제제	변형 농산물의 재배
주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의 필요성과 문제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와 관련한 필수 쟁점을 설정한 후 찬반 주장을 주고받고 있다. •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개념 정의,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구성	입론 - 교차 신문 - 반론 - 최종 변론

•구성

논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쟁점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찬성 측 제1토론자 입론
반대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반대 측 제1토론자 입론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쟁점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찬성 측 제2토론자 입론
반대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반대 측 제2토론자 입론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반론 및 최종 변론

반대 측 제1토론자 반론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론
반대 측 제2토론자 최종 변론
찬성 측 제2토론자 최종 변론

•토론의 쟁점

- **쟁점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근거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기아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농산물의 적절하지 못한 분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생산물의 적절한 분배보다 경제적이지만 못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 **쟁점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근거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여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모나크나비 애벌레의 예처럼 농약이나 살충제보다 더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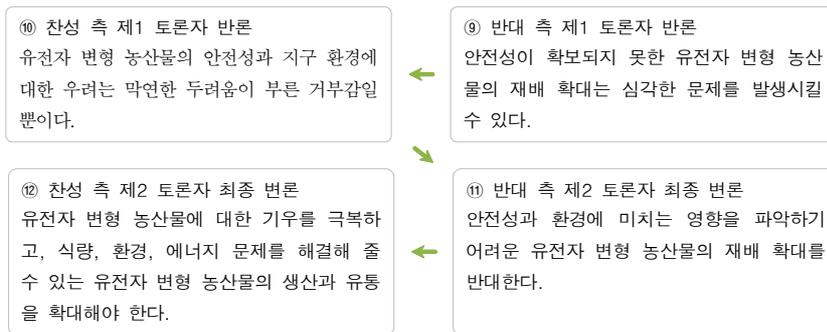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모의토론 문제

1. 이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 보자.

•입론



•반론 및 최종 반론



2. 이 토론의 입론과 반론 단계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제시된 각 쟁점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확인해 보자.

• **쟁점1**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유/근거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기아 문제는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농산물의 적절하지 못한 분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 **쟁점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근거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여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모나크나비 애벌레의 예저렴 농약이나 살충제보다 더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2) 반론 단계에서 양측이 상대편의 입론을 적절하게 반박했는지 평가해 보자.

	쟁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는가?	쟁점에 관한 입장이 분명한가?	주장의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가?
반대 측의 반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안전한가?’를 중심으로 논증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함.	2005년 국제 환경 단체의 발표 결과를 근거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주장함.
찬성 측의 반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안전한가?’를 중심으로 논증함.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주장함.	벼의 품종 개량과 유전자 변형이 다르지 않다는 점과, 업체가 개발 단계와 개발 후에도 엄격하게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위험하지 않음을 주장함.

3. 필수 경점을 중심으로 토론의 논점 구성 방식을 이해한 후, 토론 내용을 평가해 보자.

(1) 이 논제의 필수 경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논점 구성 방식을 이해해 보자.

찬성 측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농약과 제초제, 화학 비료 등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 화석 연료의 고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 의 심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기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생산량을 늘일 수 있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한다 해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새로운 방식으로 오히려 더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결 방안의 따르는 이익/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식량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든다.

(2) 이 토론에서 어느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평가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찬성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 측이 제기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 반대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실제 초래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부터 듣겠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는 교차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지요?

찬성 1 :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 2 :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찬성 1 : 그것은 수요·공급 등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든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

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셨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반대 1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실제로도 그랬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까요?

반대 1 : 아직까지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 토론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과열되어 예의에 어긋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 우리 측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 등을 점점 더 많이 뿌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산성화가 되었고, 공기는 더러워졌으며, 수질 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양측에서 입론을 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찬·반 토론자의 주장이 타당인지 평가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

박하고 있다.

- ⑤ 입론, 교차 신문이 끝나면 반론, 최종 변론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가리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토론의 논제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보기>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다.’와 같이 사실 논제란 말 그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제를 의미한다. 사실 논제는 시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로 나뉠 수 있으며 흔히 법정 공방에서 볼 수 있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논제도 사실 논제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처럼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가치 논제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와 같이 어떤 정책의 실행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주장하는 논제는 정책 논제라고 한다.

- ①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 ②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
- ③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 ④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
- ⑤ 출신 학교를 서열화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리고등학교 (서울)

3. 위 토론의 논제와 관련하여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개발 도상국에서 GM(유전자 조작) 작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처음 몬산토는 자사의 Bt(Bio technology) 면화가 병충해에 강해 결과적으로 더 적은 살충제를 쓰게 되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Bt 면화는 GM 작물의 한 종류로,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을 분비하도록 면화의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이다. 그러나 인도의 종자지킴이 네트워크 ‘나브다냐(Navdanya)’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동부권인 비다르바(Vidharbha)에서는 Bt 면화를 사용한 아래 살충제 사용이 오히려 13배 증가했다. 살충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었다.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브라질은 2008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충제를 사용해 왔다. GM 작물 재배로 살충제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가.

- ① 인류의 식량 부족의 원인이 잘못된 분배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다.
- ②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육류 소비의 감소를 주장하는 데 활용한다.
- ③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 토론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④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반대 측 토론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 활용한다.
- 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에 유익하므로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때 활용한다.

가리고등학교 (서울)

4. 위 토론을 보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대한 찬·반 주장과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찬성측 입장	주장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유/근거	㉠
반대측 입장	주장	식량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유/근거	식량 부족 문제는 분배 체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세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하다.

<조건>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근거를 쓸 것.
- 핵심 내용을 담아 한 문장으로 쓸 것.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부터 들겠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는 교차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지요?

찬성 1 :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 2 :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찬성 1 : 그것은 수요·공급 등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든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

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셨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반대 1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실제로도 그랬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까요?

반대 1 : 아직까지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 토론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과열되어 예의에 어긋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 우리 측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 등을 점점 더 많이 뿌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산성화가 되었고, 공기는 더러워졌으며, 수질 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미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5. 토론자들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찬성1'은 입론에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내리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찬성1'은 교차신문에서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며 답변하고 있다.
- ③ '반대1'은 입론에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반대2'는 교차신문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토론을 이끌고 있다.
- ⑤ '찬성1'과 '반대1'은 입론에서 모두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이 경제적임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6. 찬성 측의 주장을 필수 쟁점별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 현재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② 문제 :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 ③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④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유전자 변형 기술로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워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
- ⑤ 해결 방안에 따르는 이익 : 국가 간 식량 분배를 조절하여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7. 위 토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몬산토'는 자사의 Bt(Bio technology) 면화가 병충해에 강해 결과적으로 더 적은 살충제를 쓰게 되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Bt 면화는 GM 작물의 한 종류로,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을 분비하도록 면화의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이다. 몬산토의 Bt 면화 종자는 'toxin Cry'라는 살충제 성분을 함유해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인도 정부는 전체 면화 생산지의 90%가 Bt 면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의 종자 지킴이 네트워크 '나브다냐'에 따르면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동부권인 비다르바에서는 Bt 면화를 사용한 이래 살충제 사용이 오히려 13배 증가했다. 이 살충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었다.

- ① 반대 측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반대 측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발생 국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찬성 측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문부터 들겠습니다.

찬성 1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천 4백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 ○○○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는 교차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지요?

찬성 1 :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 2 :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찬성 1 : 그것은 수요·공급 등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문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둔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

문정고등학교 (서울)

8. 빈 칸 ㉠에 들어갈 논제를 한 문장으로 쓰되 ‘~해야 한다’로 서술하시오.

문정고등학교 (서울)

9. 빈 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②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식량 부족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③ 미래의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 ④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 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섭취한 뒤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1-(1) 동짓돌 기나긴 밤을

1.② 2.④ 3.② 4.① 5.서리서리 6.㉠베어 내어 ㉡이불 아래 ㉢사랑하는 사람 7.④ 8.⑤ 9.③ 10.④ 11.⑤ 12.① 13.① 14.③ 15.④ 16.④ 17.⑤ 18.①④ 19.⑤ 20.⑤ 21.④ 22.⑤ 23.③ 24.⑤ 25.③ 26.③ 27.③ 28.② 29.④ 30.② 31.②④ 32.⑤ 33.④ 34.② 35'핵심 시어'를 살리면서 '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바꾸고자 함.

1-(2) 봄봄

1.⑤ 2.③ 3.④ 4.㉠해학성, ㉡향토성 5.③ 6.① 7.③ 8.④ 9.④ 10.② 11.② 12.② 13.② 14.② 15.① 16.① 17.③ 18.② 19.② 20.④ 21.⑤ 22.② 23.④ 24.(1)㉠-㉡-㉢-㉣-㉤-㉥-㉦-㉧-㉨-㉩-㉪-㉫-㉬ (2)'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런 싸움을 극대화시켜 작품의 긴장감을 살리고 해학성을 부각한다. 독자가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④ 26.② 27.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수준이 떨어진다. 28.② 29.③ 30.② 31.④ 32.④ 33.① 34.⑤ 35.② 36.⑤ 37.① 38.④ 39.③ 40.⑤ 41.⑤ 42.④ 43.(1)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이고, <보기>는 순행적 구성이다. / 윗글은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고, <보기>는 사건의 배경과 결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다. (2)바다 44.② 45.④ 46.② 47.①

1-(3) 이옥설

1.③ 2.① 3.⑤ 4.④ 5.① 6.③ 7.② 8.① 9.③ 10.② 11.(1)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12.② 13.① 14.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5.④ 16.③ 17.① 18.④ 19.⑤ 20.① 21.③ 22.① 23.②

24.① 25.⑤ 26.④ 27.① 28.② 29.③ 30.② 31.⑤ 32.④ 33.① 34.② 35.①⑤ 36.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37.④ 38.② 39.③

1-(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⑤ 2.④ 3.② 4.① 5.㉠ 몽타주 기법 ㉡ 대사 없이 행동만 연속적으로 나열해서 보여준다. 6.② 7.③ 8.⑤ 9.⑤ 10.② 11.④ 12.③ 13.① 14.② 15.③ 16.⑤ 17.⑤ 18.④ 19.③ 20.③ 21.③ 22.② 23.③ 24.④ 25.① 26.②⑤ 27.S#165. 전원주택, 몽타주 / 저녁-아침-낮-밤 28.④ 29.④ 30.③ 31.② 32.④ 33.④ 34.② 35.④ 36.(1)연극 (2)대사 (3)극 37.③ 38.② 39.③ 40.⑤ 41.과거 오진을 했던 일 때문에 '실력 없는 의사'라는 자괴감을 느끼며, 의사이면서도 자기 아내의 병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미안함을 드러낸다. 42.③ 43.② 44.③ 45.④ 46.㉠몽타주, 앞으로 누리지 다시 누리지 못할 일상적인 행복과 아픈 인희의 모습을 교차시켜 제시함으로써 예고된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2-(1) 한국의 정체성

1.③ 2.③ 3.② 4.② 5.② 6.③ 7.③ 8.① 9.⑤ 10.④ 11.⑤ 12.② 13.⑤ 14.③ 15.① 16.④ 17.⑤ 18.① 19.① 20.사람들이 '개성'이 아니라 '시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1.③ 22.② 23.② 24.고유성은 시원이 아니라 개성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만의 개성과 독특함을 갖는다면 원조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5.① 26.① 27.④ 28.⑤ 29.프랑스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여 포도주를 프랑스의 상징으로 만든 것처럼, 탁 선생은 탁 선생만의 방식으로 족발을 개발하면 된다. 30.④ 31.③ 32.① 33.④ 34.③

2-(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1.③ 2.③ 3.⑤ 4.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5.② 6.⑤ 7.④ 8.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9.④ 10.④ 11.② 12.③ 13.④ 14.② 15.② 16.① 17.③ 18.① 19.④ 20.⑤ 21.① 22.④ 23.③ 24.② 25.⑤ 26.④ 27.㉠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피곤하기 때문에 수업에 열중하기 어렵고 이것이 성적

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낸.

12.②

▶농사일에 한창 힘써야할 계절적 배경에 성례 문제로 주인공의 나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건이 진행됨.

① 인물간의 갈등으로 인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주관적인 묘사가 대부분임. ④ 편집자적 논평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타남. ⑤ 주인공의 시선에 의한 주관적인 사건의 관찰이기에 신뢰감을 주는 것은 아님. 신뢰감은 객관적인 관찰일 경우에 커짐.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

ㄱ.서술자가 인물 및 상황에 대해 감정 반영, 해석, 판단 등의 주관적 서술이 뚜렷함.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ㄴ.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인 듯한 말투를 사용. (-~더라, ~리오, ~것다, ~렀다 등)
(느낌표가 있어 감정이 드러나면 편집자적 논평일 가능성이 높다)

[지문 변형]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한다. 별주부 내외 참으로 곤란하겠구나! 곤란하겠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두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14.②

▶시점이 바뀐다고 인물의 대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비어, 속어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

④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일 경우 '나'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⑤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경우 나의 행위에 대한 장인의 심리를 알 수도 있다.

15.①

▶㉠와 ①에는 언어 유희가 사용됨.

② 역설법 ③ 반어법 ④ ⑤ 의인법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2.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17.③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등의 사용

18.②

▶㉠: 장인에 대한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장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9.②

▶편집자적 논평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타남.

20.④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해학적인 비판임.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21.⑤

▶점순이는 순박한 인물은 아니므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희화 (★)

익살맞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비유.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다.

22.②

⑤ <보기>에 비속어는 없음.

23.④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됨.

26.②